

100년 동안 사랑받는 아이템의 비결은?

컨셉은 발견이다

노한나 지음

“한 사회에 뚜렷한 상징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셈이다. 분명한 상징성이 안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구성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밖으로는 그 사회의 정체성을 쉽게 드러낸다. 이것은 무한히 반복될 아이템을 생산해내는 데 핵심 요소일 수밖에 없다. 누가 보아도 공감할 만한 아이템, 제작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아이템, 우리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낼 때 그 물건이 상징하는 시그니처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팔리는 컨셉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한다. 일상에서 문득 떠오른 사업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연결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를 실제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비자 니즈와 판매자 예측 사이에서 ‘잘 팔리는 컨셉’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을까?

대박 아이템을 발견하는 기술을 7가지 키워드로 묶은 ‘컨셉은 발견이다’는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아이템, 오래도록 팔리는 상품에 담긴 비결 등을 담고 있다. 방송작가 생활을 하며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노한나가 저자다.

저자는 그동안 전 세계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했다.

책은 아이템을 발견하는 7가지 기술을 담았다. 아이템의 시작인 ‘소재’의 선정부터 평범한 상품도 명품으로 바꾸는 ‘정보’ 활용법,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팁, 고객 사이의 공감을 형성하는 ‘추억’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다양하다.

보통 상품 하면 ‘소재’를 떠올린다. 소재란 물건의 아



아이템에 환상을 더한 작품으로 유명한 가우디의 작품, 까사 바트요 공원.

〈청림출판 제공〉

이디어일 수 있고, 물건을 이루는 재료나, 사회적 가치 일 수 있다. 저자는 다른 무엇보다 소재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사는 지역의 문화적 관습이나 사회적 행동 양식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원래 포크는 요리할 때 익힌 고기를 집어내던 도구였다. 그러나 11세기 베네치아에서 포크를 작게 만들어 식탁에 놓았다. 처음에는 삼지창 같다는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15세기부터 식탁예절이 바뀌고 손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포크는 식탁문화로 자리잡았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는 확장되지 않았지만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어느 순간 가치가 올라간 예”이다.

구매를 부르는 것은 ‘감각’적 아이템과 연관돼 있다. 디자인이 산업에 응용되면서 사물을 보고 느끼는 인상적인 감각이 중요시됐다. 제품을 만드는 이는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끊임없이 디자인을 고민한다.

저자는 핀란드인들의 색 감각을 예로 든다. 북유럽에서 해가 가장 짧은 나라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 집 안의 공간을 색으로 채웠고, 빛이 드는 느낌을 위해 빛과 흰색이 섞인 색을 만들다보니 지금의 파스텔톤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00년 동안 사랑받는 아이템의 조건은 무엇일까? 바로 ‘동심’이다.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지팡이, 만화 ‘원피스’의 캐릭터 피규어를 예로 들 수 있다. 동화의 고전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모티프의 모티프를 낳는’ 좋은 소재다.

“모티프만 따온 뿐 우리가 만들 콘텐츠 아이템과 피노키오라는 소재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의 여백이 아이템을 더욱 다각화하고 모티프의 연결고리를 찾는 재미마저 만들어낸다.” 〈청림출판·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차와 일상=티 소믈리에 이우진이 들려주는 차 그리고 차와 함께하는 일상을 담고 있다. 차의 맛과 향, 차 도구와 차의 식 등 차 생활에서부터 이들을 위한 차 식생활 노트와 레시피를 담아 차와 함께하는 일상의 기쁨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이미 차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나와 가족을 돌보는 차 생활의 기쁨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준다. 〈샘터사·1만6000원〉

▲니체와 함께 산책=일본 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 시라토리 하루히코는 빠른 속도와 효율이 미덕인 세상에 휩쓸리듯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진짜 삶을 되찾을 것을 권한다. 니체, 괴테, 릴케 등 위대한 사상가 7인이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상에서 명상에 도달한 방법을 전하면서, 우리 역시 각자 일상에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다산초당·1만4500원〉

▲마리안느의 마지막 멤버=제12회 한겨레문학상, 제4회 스토리킹 등을 수상한 서진 작가의 작품이다. 뱀파이어가 된 중학생 영수와 걸 그룹 마리안느를 좋아하는 고등학생 현지가 각자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다. 사라져 버린 영수의 엄마와 현지의 친구 혜수를 찾아 나가는 서스펜스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창비·1만2000원〉



▲내가 늙어버린 여름=여성문학, 페미니즘으로 인정받는 미국 학자인 저자 이자벨 드 쿠르티브롱가 어느 여름 통제할 수 없는 ‘늙음’을 맞닥뜨리고, 자신을 성찰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늙음’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마주한다. 늙음과 죽음에 대한 생각의 전환점을 마련해 준다. 〈김영사·1만4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식빵을 버리려다=제17회 주연 어린이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어린이 성장 소설로 떠돌이 강아지 식빵을 버리려다 발견한 진정한 우정과 용기를 이야기한다. 일진 고타로와 질투심 강한 임원 마치 그리고 괴롭힘당하는 유키를 외면하는 어린 시절 친구 료스케 등 6학년 아이들의 세밀한 감정을 풀어냈다. 유키와 식빵은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까? 〈씨드북·1만2000원〉

▲우주 택배=오늘날 아이들에게 친숙한 택배와 흡소팡이, 시공간을 초월한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까라는 상상력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지구인과 외계인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구와 우

주 흡소팡이 통합되고, 서로 사용하는 물건을 택배로 손쉽게 주고받는 우주 시대를 배경으로 우주 곳곳을 누비며 펼쳐지는 수놓이와 따콩이의 좌충우돌 배송 에피소드를 담았다. 〈시공주니어·1만3000원〉

▲나처럼 선생님과 같꿈 선생님은 서로 상반된 성향의 두 선생님을 해학적으로 그렸다. 두 선생님의 비교를 통해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기질과 가치관이 다르지만,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맛있는책·1만5000원〉

여행객 넘쳐났던 나치시대 독일...파시즘 발호 왜 아무도 몰랐나

히틀러 시대의 여행자들

줄리아 보이드 지음·이종인 옮김

독일과 관련한 책을 읽거나, 독일 작곡가의 음악을 들을 때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특히 독일을 여행하게 될 때면 그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1·2차 세계대전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문화와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나치 체제가 공고히 유지됐으며 히틀러라는 문제적 인물은 영웅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이다.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에 근무했던 조사연구자 줄리아 보이드가 쓴 ‘히틀러 시대의 여행자들’은 1919년부터 1944년까지 세계 1·2차 대전 사이에 제3제국(나치가 그들의 국가를 통칭하는 말)을 방문했던 외국인 여행자의 시선으로 그려낸 히틀러시대 독일의 생생한 초상이다. 책은 2017년 출간 당시 ‘가디언’ ‘독자’의 선택에 선정됐으며 ‘LA 타임즈’ 등에서 그 해 최고



의 역사 도서로 뽑혔다. 책은 미국의 조종사 찰스린드버그,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 시인 타고르 등 정치인, 음악가, 외교관, 운동선수, 시인, 언론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를 포함해 학생과 평범한 일반 관광객들의 시선으로 나치 시대의 모습을 그려냈다.

저자는 당시 외국인 방문자들의 일차적이고도 직접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히틀러의 독일을 여행하는 것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생한 현장 감각으로 재연, 그 시대 사람들이 겪었을 혼란과 부조리 등을 옹니버스영화처럼 그려낸다. 저자는 인용한 여행자들의 기록이 “황당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아주 사소하기도 하면서,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들의 이야기는 제3제국의 아주 복잡한 사정과 구조, 그 역할과 모습, 그리고 그 제국의 최종적 멸망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말한다.

당시 독일을 방문한 이들은 나치의 프로파간다에 노출됐지만 나치의 선전은 치밀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았으며 그 허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과거를 딛고 새로운

건설한다는 이들의 ‘평화 국가’ 안에는 군사 제국의 야망과 사상의 탄압, 인종 차별과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유대인·사회주의의 커넥션의 음모라며 나치가 선전하는 내용은 많은 부분이 기초적인 사실에서부터 틀린 것들이었다.

나치는 영토에 대한 야욕과 전쟁에 대한 야망을 그다지 열성적으로 숨기지도 않았었고, 독일 밖의 언론은 나치와 히틀러의 야욕을 비판하는 기사를 연일 실어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독일로 앞 다투어 여행을 떠났고 여행을 가기 전이나 돌아온 뒤에나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독일에 대한 호의를 접지 않았다.

저자는 “2차 대전 종전 후 관점에서 돌아볼 때 1930년대 독일을 방문했던 이들의 문제는 히틀러와 나치는 악마이고,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보이거나 파시스트라고 손쉽게 흑백논리로 귀결돼 버린다”고 말하며 책을 통해 또 다른 시선으로 당시를 바라볼 것을 권한다. 〈페이퍼로드·3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